



‘해외가로 만나보는 미국 판매 NO.1 리슬링 브랜드’

샤토 생 미셸 컬럼비아 밸리 드라이 리슬링

Chateau Ste. Michelle Columbia Valley Riesling

지역	미국 > 워싱턴 주 > 컬럼비아 밸리		
포도품종	리슬링 100%		
알코올	12.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2℃		
테이스팅 노트	드라이하고 청량한 스타일의 리슬링으로, 달콤한 시트러스 계열의 풍부한 과실풍미에 경쾌한 산도와 우아한 피니쉬를 보여준다. 놀라울만큼 다채로운 푸드 페어링이 가능한 와인이며, 특히 굴과 환상의 궁합을 선보인다.		
페어링 TIP	해산물/ 채소/ 치즈/ 훈제,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매운 음식		



제품설명



워싱턴 주 컬럼비아 밸리는 프랑스 보르도와 같은 북위 46도에 위치하며 하루 중 17시간 가량의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보르도’라고도 불리는 지역이다. 캐스케이드 산맥의 동쪽에 위치하여 사막같은 건조한 기후 특성과 낮은 강수량으로 집중도 있는 진한 풍미의 포도를 생산해내며, 한낮의 태양과 밤 사이의 추위가 반복되어 산도와 탄닌, 탄탄한 풍미를 지닌 완벽한 포도가 숙성되는 지역이다. 특히 리슬링은 고유의 산도와 과실미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추운 밤에 수확한다. 컬럼비아 밸리 드라이 리슬링은 기존 리슬링보다 드라이한 맛과 경쾌한 산도로 다양한 음식들과 매칭하기에 더할나위 없는 선택이며, 2년 연속 Wine & Spirits Top 100 Value 와인으로 선정된 최고의 가성비 와인이다.

수상내역



2021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90점
2021빈티지 와인 앤 스피릿 Wine & Spirits 88점
2021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88점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